하나님의 칭의와 사탄의 칭의 사이

(열왕기상 21:23~29)

23.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르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24.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하니
25.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음이라
26.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27.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베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베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28.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9.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하므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칭의와 사탄의 칭의 사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의 칭의와 사탄의 칭의 사이'
칭의(稱義)는 의롭다고 여겨주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칭의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 아니라 사탄 마귀도 우리를 향하여 '너희가 옳도다.'라는 칭의를 합니다.
칭의는 우리의 실질적인 삶에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옳다 여겨주심으로 천국가게 되는 것 이외에,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장사하고 집안에서 부부가 가정을 이끌어 가며 자녀를 키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인데 이렇듯 칭의의 실질적인 효과가 퇴색되어 버린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옳다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시작이고 그 일에서 보일 수 있는 모든 추진력의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가게를 얻어서 장사를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돈을 버는 목적에 대해 옳다는 확신이 서야만 합니다. 합리화를 시켜서라도 옳은 것임을 확인해야 무슨 일이든지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변호사가 피의자를 변호할 때에 중요한 것은 변호하는 사람이 반드시 무죄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무죄임을 변론해서 재판에서 승소하고 재판이 끝났는데, 자기가 변호했던 피고가 진범임이 드러나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은 피고가 옳다고 생각하여 변론해서 무죄방면을 받았는데 그가 사실은 진범이었다면 이 후회감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에이브람 링컨이 노예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을 일으켰는데 남부에 속한 백인들과 북부의 군인들이 너무나 많이 죽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동안은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했던 흑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 동안 인간이었던 백인들이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에 링컨에게 자신의 노예해방에 대한 옳다는 확신이 없었다면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엄마들이 아이들의 조기 유학을 결정해서 외국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공부를 잘 못하던 아이가 외국에 간다고 해서 잘 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에서도 공부를 못하니 도저히 감당이 안 돼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지만, 3~4년 만에 돌아온 한국에서는 더 적응을 못하고 우왕좌왕하기 시작하고 아이가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못한 채 공중으로 떠버립니다. 이때에 엄마에게는 아이의 미래를 위해 과연 올바른 행동을 했는지에 대한 위기감과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이처럼 옳다고 인정하는 것은 삶 전반에 걸쳐서 힘과 추진력으로 나타나며, 세상 기준으로 일이 끝나고 심지어 실패했을지라도 옳다는 확신이 있다면 그 일은 실패가 아닌 게 됩니다. 그러나 일이 잘 됐더라도 마음 한쪽 구석에서 이 일이 과연 옳았는가의 의문이 싹튼다면 실패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귀로부터 각각 옳다는 인정을 받게 하는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데 마귀에게서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이 주어집니다.

단 마귀의 칭의는 내가 옳다고 여겨서 추진력을 가지고 삶에 임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를 속여서 멸망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칭의는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칭의는 모두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게 됩니다.

이 마귀에 칭의에 대한 분명한 개념정리가 없고 자각이 없다면 하나님의 칭의에 대한 윤곽이 허물어져서 무엇이 하나님의 칭의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의는 율법적 행위나 공로가 아닌 믿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한 사탄의 칭의도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므로 믿음은 단순히 종교적 차원의 개념이 아닙니다.

말씀드렸지만 사도신경은 믿음의 내용이고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크레도(Credo)인

데 ‘나는 믿는다.’라는 뜻의 1인칭 동사로 ‘심장과 준다.’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즉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라는 말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 내 마음을 드립니다.’라는 뜻인데, 어떤 대상에게 마음을 드려서 결합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것은 종교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대상에게 마음을 주고 그 대상과 결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조 때부터 결정된 사안이 있는데 인간의 마음속의 공백입니다. 이 공백이 채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마음을 드리게 되고, 만족과 기쁨이 주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쁨은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인간의 삶의 원초적 공간은 기쁨의 정원인 에덴이었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향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버지요 내 기뻐하는 분이십니다.’라고 말씀하실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15: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도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부분의 말씀입니다.
요17:13절에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마음을 주는 것인데 마음을 주는 대상으로부터 기쁨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길로 믿는 것인데, 예수님만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이 드려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만이 기쁨과 만족의 유일한 원천이심을 믿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내게는 길이 없고 나의 죄인 됨을 극복해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신앙의 칭의의 내용입니다.

본문 25절에 “예로부터 아합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를 충동하였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바로 이러한 이세벨의 충동이 마귀의 칭의입니다. 아합이 ‘자신을 팔았다’는 말은 20절에도 나오지만 25절에서는 ‘자신을 팔았다’는 말에 이세벨의 충동이 붙어 나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바로 이세벨의 충동이 아합에게는 칭의로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맨 마지막 부분에서는 뜬금없게도 아합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까지 아합의 반달리즘의 행보와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 회개가 엘리야가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음성을 듣고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본문이 뜻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실존인 삶의 위치가 아합과 같은 것인데, 이세벨의 충동과 엘리야의 음성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충동은 사탄의 칭의가 이세벨의 인격을 통해 들려진 것이고, 엘리야의 음성은 하나님의 칭의가 그릇된 일에 대한 심판으로 들려주시는 가운데 아합이 서있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충동으로 인해 아합이 악을 자행하게 된 것은 먼저 자신을 판 것에 기인하고, 아합이 자기의 마음을 판 것은 나봇의 포도원에 마음을 결합시킨 것과 같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이 자기에게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나를 판 것이고 마음을 준 것입니다. 아합에게는 나봇의 포도원이 기쁨과 만족을 줄 것이라는 믿음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나봇의 포도원을 얻지 못하게 되자 근심하고 답답하여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에 어제 본 7절에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르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라고 묻는 것은 ‘당신이 이 나라의 왕이 맞습니까?’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그 포도원을 차지할만한 자격이 얼마든지 있다고 부추기며, 나봇의 포도원을 가지려는 믿음이 잘못되지 않았다고 칭의하는데 마음이 팔려간 상태를 칭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마음이 포도원에 팔려 믿고 있는 상태를 현실로 만들기 위하여 방법을 제시하고 수단을 제공해주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교회에 교인들이 올 때에 다들 마음을 무엇인가에 주어서 믿음을 가지고 옵니다.
자녀문제 경제문제 사업문제 건강문제 결혼문제 등의 문제들을 안고 옵니다. 이것들이 해결되면 만족과 기쁨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었고 이것들이 내 마음을 사로잡은 것입니다. 마음을 주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에서 건강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잘 믿으면 건강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마귀의 칭의를 대신 하는 것이고 이세벨의 충동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정 사업 자녀 직장 취직 승진 결혼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답답하고 근심하며 밥맛도 없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하고 당신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마든지 부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말하고, 얼마든지 건강하게 장수할 자격이 있다고 하며, 얼마든지 자녀들의 형통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하는데, 이런 말을 하는 설교 강단은 이세벨의 충동의 자리이고 마귀의 칭의의 자리로 바뀌고 말 것입니다.
엘리야는 와서 죽음과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칭의의 본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팔려진 마음에 대한 심판도 하실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성공하는 자들의 일곱 가지 습관” 같은 것들은 이세벨의

충동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기준대로 성공하고 싶은 나에게, 이세벨이 수단을 강구해 주는 것처럼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수단을 강구해주는데 이것이 충동질이고 마귀의 칭의입니다.
이 땅에서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고 싶어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합니다. 돈 좀 벌고 싶다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고 말하고, 사업을 하면 당연히 흑자를 봐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를 하면 교인이 늘어서 부흥이 되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 나를 팔아버리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기 바쁘기 때문에 교회 부흥으로 기뻐할 마음의 여분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바라고 소망할 마음의 여지가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은 죄적 체질 때문에 꽃을 본 나비가 달려들 듯이 이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 가치들에 저절로 가서 착착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생활화 해야만 합니다.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서 내가 팔려가는 일이 멈춰져야 하고 제지당해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을 것이라고 마음을 주어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해하고 근심하고 아합처럼 입맛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충동을 받아서 수단을 강구하며 그것들을 얻으려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마음을 줄 대상이 세상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활했다'는 것은 '이제는 운명적으로 나의 만족과 기쁨이 하늘에만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나의 만족과 기쁨임을 필연이고 숙명으로 아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이러한 방향 전환이고 결단을 나 자신에게 우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은 세상 것으로 기뻐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예를 들어 얼마 전에 우리나라와 중국이 축구시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 기쁩니다. 이때의 기쁨은 기계적이고 반사적인 기쁨으로 저절로 용솟음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만져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시고 들리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기뻐져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골을 넣는 것에 대해서는 기뻐하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나라 선수들이 골을 넣으면 당연히 기뻐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은 '의식적으로 기뻐하라'는 것인데 이것이 믿음이고 나 자신에게 우기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돈도 없고 건강도 별 볼일 없고 사회적으로 알아주는 자리에 있지도 않습니다. 내 동창은 TV에 장관이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나보다 공부도 못하던 동창생이 장관이 되어서 패배감을 느끼

고, 옆집에서는 외제차를 뽑는다고 난리가 났는데 나는 여전히 10년 넘은 국산차를 질질 끌고 다니고, 상황은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지만 그 기분 나쁘고 우울한 상황에 대고 하나님 한 분 가진 것을 우기는 것인데 고집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것이고, 나는 진정한 기쁨의 원천을 가진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고, 하나님이 나의 소유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회개조차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나오기 전에 의식적으로라도 ‘하나님 한 분 가졌으면 됐다’고 나 자신을 설득하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 때문에 기쁘다’는 이 진리를 놓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내 마음은 울고 있지만 내 의식은 나를 주장하여 ‘하나님 때문에 기쁜 것은 사실이다’라고 나를 설득하고 우기는 것인데 이게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식적 믿음의 기쁨이 십자가 붙잡고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에 어느덧 저절로 기뻐지고 저절로 평강은 오게 될 것입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저절로 기뻐지고 행복해집니다. 아무것도 안 가졌을지라도 다 가진 것 같은 절대 평강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몸과 내 생각을 장갑 삼으시고 이 세상에서 당신의 뜻을 펼쳐나가시며 이웃을 만나고 회사를 가게 하시며 장사도 하게 하시고 부부가 함께 가정을 이끌게 하시고 자녀를 대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 행위가 하나도 없더라도 하나님만이 운명적이고 숙명적으로 나의 기쁨과 만족의 유일한 원천이시라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칭의이고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많이 들어올지라도 그것으로 인해 기뻐하려는 나에 대해서 방어하시고, 마찬가지로 돈이 없다고 해서 답답해하려는 나를 방어하세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근본적으로 나의 평강과 만족과 기쁨과 관계가 없기 때문인데 이것을 의식적으로 우기고 주장하며 억지를 부려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과 상황이 하나도 기쁠 수가 없더라도 십자가를 붙잡고 주님과 함께 죽을 때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된다고 하셨으므로 하나님을 가진 자로서 기쁘다고 억지를 부리는 것인데 그것만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슬픈 것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의 칭의인 이 세상에서 ‘비전을 가지라’는 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합의 마음이 나봇의 포도원과 결합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마음이 팔려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답답하고 근심합니다. 그럴 때에 마귀는 ‘너는 이룰 수 있어. 네가 지금 포도원으로 기뻐하려고 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그것을 믿는 것은 잘하는 거야. 추진해.’라고 하면서 이때 이세벨이 도와주는데 마귀의 충동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지라’는 말 외에 이 세상 것에 마음이 붙어 있는 우리들에게 자기계발서, 지침서, 경험서, 도움을 주는 말 등의 모든 것들은 이세벨의 충동이고 마귀의 칭의임을 명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합은 지금 이세벨의 충동과 유일하게 칭의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엘리야의 음성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마귀의 칭의에 대한 뚜렷한 개념을 가지고 경계하며 오직 하나님의 칭의로만 힘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